

김윤덕산조와 이말량산조의 선율비교
(金允德散調와 李末良散調의 旋律비교)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에 기(基)하여)

張 貞 美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目 次

1. 序 言	① 長短
2. 丁南希流 가야금散調의 傳承系譜	② 旋律
3. 金允德散調와 李末良散調의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비교	4. 結 言

1. 서 언(序 言)

산조(散調)는 장단(長短)에 따라 구성(構成)된 조곡(組曲)형식의 기악독주곡(器樂獨奏曲)인데 판소리와 같은 향토음악언어(鄉土音樂言語)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술성이 높은 민속악(民俗樂)의 한 종류이다.

산조(散調)의 음악(音樂)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전래(傳來)되어 오던 무악계(巫樂係)의 음악(音樂)인 시나위에서 발전(發展)되어, 판소리음악(音樂)을 수용발전(受容發展)시켜서 성립(成立)된 것이라는 설(設)¹⁾이 지배적이다. 즉 전라도(全羅道) 살풀이 충청도(忠淸道) 살풀이 경기도(京畿道)의 도살풀이 등의 시나위권인 무속음악(巫俗音樂)을 보면 가(歌) 악(樂) 舞(무)로 연출(演出)이 되는데 이러한 의식(儀式)에서 놀이만을 위한 음악(音樂)으로 독립(獨立)되면서 가(歌)는 판소리, 악(樂)은 산조(散調), 무(舞)는 민속무용(民俗舞蹈)으로 각기 발전(發展)된 형태(形態)로 나타났다고 한다.

올해 봄 4월(月)과 5월(月)에 걸쳐 부산(釜山) 및 기타 6개(個) 지역(地域)²⁾에서 조사(調査)된 산조조사(散調調査)는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에서 행해지는 연차적(年次的)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조사(調査)의 일환(一環)이었다. 이 조사(調査)는 1985년도(年度)에서 198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전국(全國)의 산조실태(散調實態)를 조사(調査)하여 산조(散調)의 계보(系譜)를 밝히고 전승(傳承)의 길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경험과 무지를 무릅쓰고 부산(釜山)을 첫 조사지(調査

1) 李輔亨 調査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제 94호 p. 15 參考

2) 진주, 대구, 경주, 목포, 광주, 영광

地)로 하여 주로 영호남(嶺湖南)지방을 조사 하였는데, 지방(地方)의 예인(藝人)들을 만나서 음악(音樂)과 또 그들이 연륜(年輪)과 함께 지켜온 궁지높은 음악관(音樂觀) 내지는 음악혼(音樂魂)을,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調查)는, 아직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산조(散調)에 관한 예능인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데서 그 성과(成果)를 찾을 수 있는데, 경상북도 경주(慶尙北道 慶州)에 사는 이말량(李末良)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이말량(李末良)이 보유하고 있는 산조(散調)는 정남희(丁南希)바다 가야금 산조(散調)인데 지금까지 정남희류(丁南希流)는 김윤덕(金允德)에 의하여 전승(傳承)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전승(傳承)되는 가락만으로는 김윤덕 전(前)의 명인(名人)의 선율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다른 유파(流派)의 산조(散調)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전(前), 혹은 그 이전(以前)의 명인들의 선율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김윤덕(金允德)의 스승인 정남희(丁南希)의 순수한 가락이 지금의 김윤덕 산조(金允德 散調)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윤덕(金允德)은 강태홍(姜太弘)에게도 배운만큼 강태홍(姜太弘)가락도 섞여있고 또 그동안 활발한 연주활동(演奏活動)을 벌이면서 원래의 정남희(丁南希)가락을 확대발전(擴大發展)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반(反)하여 이말량(李末良)은 김윤덕(金允德)보다 먼저 정남희(丁南希)에게 산조(散調)를 배웠는데³⁾, 정남희(丁南希)에게 산조(散調)를 배운 후에 다른 산조(散調)를 배운적이 없고 또 집에 학원을 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외에 연주활동(演奏活動)은 안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남희(丁南希)가락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형(原形)을 보유(保有)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점에서 김윤덕산조(金允德散調)와 이말량산조(李末良散調)를 비교하면 정남희(丁南希)가 보유(保有)한 초창기의 가락과 그 발전(發展) 과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을 논(論)하여 보기로 하겠다.

2. 정남희류(丁南希流) 가야금 산조(散調)의 전승계보(傳承系譜)

흔히 김윤덕류(金允德流)라고 부르는 가야금 산조(散調)는 한숙구(韓淑求)→안기옥(安基玉)→정남희(丁南希)→김윤덕(金允德)으로 전승(傳承)되는 제인데,⁴⁾ 주로 김윤덕(金允德)이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숙구(韓淑求)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김창조(金昌祖)(1865~1920)와 동년배(同年輩)로 본다. 한숙구(韓淑求)는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全南 和順郡 二西面 寶山里) 적벽마을에서 살다가 전남 화순군 남면 용리 2구(全南 和順郡 南面 龍里 2區)로 이사와서 살았는데,⁵⁾ 전남 화순군 동북면(全南 和順郡 同福面) 든동리에 살던 오판기(誤判基)⁶⁾가 국악(國樂)을 좋아해서 모셔왔다고 한다.

화순 동북면(和順 同福面) 든동리에 와서는 한숙구(韓淑求)의 아들 한수동 박경석 오진석 오복주(오진석의 아들 일명 : 오뜰네미) 첫대명인 한주환 등을 가르쳤다 한다.

3) 大邱散調 調査 徐相悅 談

4) 李輔亨 調査 重要 無形文化財 調査 報告書 94호 p. 5 參考

5) 이 번에 같이 조사된 散調 遺蹟地 調査에서 全南 和順郡 同福面 寒泉里 59번지에 사는 노관순 談

6) 한숙구의 제자인 오진석의 아버지

한숙구(韓淑求)는 대금 피리 가야금 해금 양금 등 여러 악기(樂器)에 능(能)하였으나 특히 관악(管樂)을 잘했다고 한다. 한숙구(韓淑求)의 가야금 산조(散調)는 안기옥(安基玉)에 전해지는 것 말고도 또 정남옥(鄭南玉)⁷⁾, 한수동(韓壽童)⁸⁾ 등이 있다고 한다.

안기옥(安基玉)은 1905년도에 전라도(全羅道)에서 출생하여 1968년도에 작고(作故)했다. 그는 가야금 산조(散調)를 한숙구(韓淑求)에게서 배웠으며 (김창조(金昌祖) 박창옥 이라는 설(設)도 있다) 그리고 정남희(丁南希) 김연수(金鍊洙) 성금연(成錦鸞) 원옥화(元玉花) 등에게 전수하였다.

정남희(丁南希)는 1906년경에 태어났으며 생존했다면 지금 나이로는 80여세가 된다고 한다. 또한 전라도 함평(全羅道 咸平)사람이라고도 하며⁹⁾ 전남 영광(全南 靈光)에 집안이 있었다고 한다. 안기옥(安基玉)에게 가야금 산조(散調)를 배웠으며 일제때에 조선(朝鮮) 성악 연구회를 중심으로 가야금 산조(散調)와 병창(竝唱)의 연주자로 일을 하였다.

김윤덕(金允德)은 1918년 전북 정읍군 입암면 신면리(全北 井邑郡 笠岩面 新綿里)에서 출생하였으며 김광석(金光錫)에게서 가야금 풍류(風流)를 배웠고 또한 김용근(金容根)에게서 가야금 산조(散調)를 사사받고 1947년에는 정남희(丁南希)에게서 가야금산조(散調)를 또 배웠으며 한갑득(韓甲得)에게서는 거문고산조(散調)를 배웠다.

그후 1968년에 이르러서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 23호 가야금 산조(散調)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78년에 작고(作故)했다.

이말량(李末良)은 1908년에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慶尙北道 慶州市 皇吾洞) 232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살고 있다.

10세때에 함경남도 함흥(咸鏡南道 咸興)에서 박경원에게 양금 풍류(風流) 전바탕을 배웠고 15세때에는 역시 함흥(咸鏡)에서 정용운에게 2년간 가야금 풍류(風流) 전바탕과 산조(散調) 가야금 병창(竝唱)등을 배웠다. 18세때에는 역시 함흥(咸鏡)에서 당시 30세쯤 되는 정남희(丁南希)에게 가야금 산조(散調)를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를 배우고 또 가야금 병창(竝唱)을 배웠다.

도표 1) 丁南希 傳承系譜



도표 1) 정남희 전승계보(丁南希 傳承系譜)

40세때에는 경주(慶州)에 와서 경주(慶州)사람인 최창로에게 5개월간 거문고 풍류(風流) 를 초벌 때고 10년간 재수를 했다.

7) 李輔亨 무형문화재 (音樂) 조사보고서② 伽倻琴散調 1980. 10 참조
 8) 大邱 散調調査의 元光浩 談에서 한숙구의 가야금 산조가 한숙구, 한수동, 박경석, 오복주에게로 전해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작고해서 전승이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
 9) 光州 散調 調査 林東善 談

1984년 5월에는 그동안 가르치던 제자들과 은퇴기념공연(隱退紀念公演)을 가졌다.

이상의 계보(系譜)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위의 표 1)과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수동(韓壽童)에게 전해진 산조(散調)는 끊어졌으며 정남옥(安基玉)과 안기옥(安基玉)에게 전해진 산조(散調)는 지금까지 전승(傳承)되고 있다.

3. 김윤덕산조(金允德散調)와 이말량산조(李末良散調)와의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비교

이 두 산조(散調)를 비교할 때 근거로 한 산조(散調)의 악보는 첫째 이말량산조(李末良散調)의 것은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에 소장되어 있는 테이프 No 6-467¹⁰⁾을 채보한 것에 근거하였고 둘째 김윤덕산조(金允德散調)는 이재숙(李在淑)교수의 저서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¹¹⁾악보의 것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는 범위는 중중모리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이말량(李末良)의 산조(散調)는 중중모리 이외에 자진모리 (자진자진모리)까지도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도표 2) 김윤덕 산조와 이말량 산조의 장단비교

산조 장단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김 윤 덕	22장단	65장단	63장단
이 말 량	11장단1각	22장단	21장단

① 장단(長短) 비교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말량산조(李末良散調)의 전체 장단수가 김윤덕(金允德)에 비하여 진양은 1/2정도, 중모리는 1/3, 중중모리도 1/3정도로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양도 장단을 완전하게 4각을 맺지 못하고 1각만으로 마무리를 지었다.¹²⁾

② 선율(旋律) 비교

가야금의 줄이름(口音)과 음(音)이름(음명(音名), 여기에서 편의상 서양음악(西洋音樂)의 음명(音名)을 사용하였다)은 아랫음(音)(줄)로부터 구음(口音)으로는 “청 흥 등 당 동 징 땅 지 쟁 칭 쯡 쨍(쨍을 “총” 이라고도 한다.) 음명(音名)으로는 “G C D g a c d e g ‘ a ‘ c ‘ d ‘ ” 이런 음(音)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가지고 선율(旋律)을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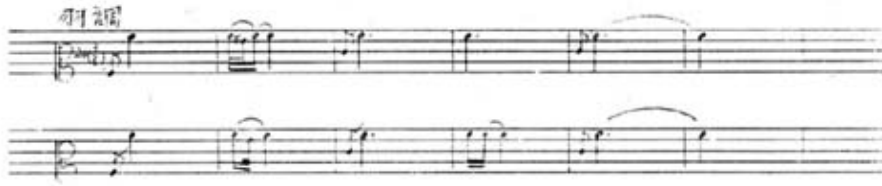
㉞ 진양조

10) 구경모가 85년 6월과 7월에 걸쳐 채보하였는데 구경모는 군악대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있었으며 지금은 한양대 국악작곡과 학생이다.

11) 李在淑著 「伽倻琴散調」 銀河出版社. 1971

12) 李末良은 고령으로 산조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보례 1) 金允德 진양 1째장단 제 1각 李末良 진양 1째장단 제 1각



보례 1) 김윤덕(金允德) 진양 1째장단 제1각 이말량(李末良) 진양 1째장단 제1각

보례 2) 金允德 진양 2째장단 제 4각 李末良 진양 3째장단 제 2각



보례 2) 김윤덕(金允德) 진양 2째장단 제4각 이말량(李末良) 진양 3째장단 제2각

보례 3) 金允德 진양 3째장단 제 1각 李末良 진양 3째장단 제 3각



보례 3) 김윤덕(金允德) 진양 3째장단 제1각 이말량(李末良) 진양 3째장단 제3각

보례 4) 金允德 진양 5째장단 제 1각 李末良 진양 4째장단 제 1각



보례 4) 김윤덕(金允德) 진양 5째장단 제1각 이말량(李末良) 진양 4째장단 제1각

보례 1)을 보면 넷째박에서 a' (칭)음(音)을 이말량은 세분해서 표현했으며 그 외의 부분은 선율형(旋律形)이 같다.

보례 2)에서 둘째박까지는 같고 셋째박에서 김윤덕은 a(동)음의 변화를 보인다. 넷째박에서는 똑같은 a(동)음(音)이 나오는데 김윤덕은 b음(音)을 거쳐 가는 표현을 했다. 다섯째박에서는 이말량은 D(동)음(音)을 한번 치고 a(동)음(音)을 냈다.

보례 3)에서 첫째박까지의 진행은 같고 둘째박에서 김윤덕은 b(동)음(音)을 바로 내는데

이말량은 c(징)음(音)을 거쳐서 b#음(音)으로 풀어 내린다. 셋째박에서는 김윤덕은 a(동)음(音)-b(땅)음(音)의 진행인데 이말량은 a(동)음(音)-d(땅)음(音)으로 간 다음 다시 풀어주면서 진행되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박의 진행형은 같다.

보례 4)는 첫째박에서 김윤덕은 e(지)음(音)으로 시작하고 이말량은 f음(音)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f음(音)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김윤덕(金允德) 산조(散調) 우조(羽調) 중 (3)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말량은 d(땅)음(音)을 내기 전에 꼭 a(동)음(音)을 한번 치고 가는 것이 보례 (3)에도 나타나듯이 김윤덕과 차이가 난다.

보례 5) 김윤덕 진양 5계장단 제 2 각 이말량 진양 4계장단 제 2 각



보례 5) 김윤덕 진양 5계장단 제2각 이말량 진양 4계장단 제2각

보례 6) 김윤덕 진양 5계장단 제 3 각 이말량 진양 5계장단 제 2 각



보례 6) 김윤덕 진양 5계장단 제2각 이말량 진양 4계장단 제2각

보례 7) 김윤덕 진양 5계장단 제 4 각 이말량 진양 5계장단 제 3 각



보례 7) 김윤덕 진양 5계장단 제4각 이말량 진양 5계장단 제3각

보례 5)에서 김윤덕은 첫째박의 d(땅)음(音)이 셋째박까지 도약없이 유지되는데 이말량은 d(땅)-f(지)음(音)의 계속적인 반복을 보인다. 넷째박은 일치되며 다섯째박과 여섯째박은 리듬형이 다르나 d(땅)음(音)은 일치된다.

보례 6)에서는 여기부터 (4)장 돌잡이 시작되는데 셋째박의 c(징)음(音)까지의 진행이 비슷하고 다음 각각 f음(音)-g'(쟁)음(音)과 e(지)-a'(칭)음(音)으로 된다. 넷째박에서도 김윤덕은 c(징)-d(땅)음(音)으로, 이말량은 c(징)음(音)이 계속된다.

다섯째 박은 첫음이 각각 f음(音)과 g' (쟁)음(音)이며 이후 선율의 진행은 같다.

보례 7)에서 첫째, 둘째박까지의 선율은 비슷하며 셋째, 넷째박에서 김윤덕은 a(동)음(音)을 변화를 주었으며 이말량은 g(당)음(音)이 계속된다. 다섯째박은 같고 여섯째박은 d(땅)음(音)에서 a(동)음(音)으로 가는 과정이 다르다.

보례 8)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 1 각 이말량 진양 5계장단 제 4 각



보례 8)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1각 이말량 진양 5계장단 제4각

보례 9)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 2 각 이말량 진양 6계장단 제 1 각



보례 9)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2각 이말량 진양 6계장단 제1각

보례 10)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 3 각 이말량 진양 6계장단 제 2 각



보례 10)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3각 이말량 진양 6계장단 제2각

보례 11)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 4 각 이말량 진양 6계장단 제 3 각



보례 11) 김윤덕 진양 6계장단 제4각 이말량 진양 6계장단 제3각

보례 12) 김윤덕 진양 7계장단 제 2 각 이말량 진양 7계장단 제 2 각



보례 12) 김윤덕 진양 7계장단 제2각 이말량 진양 7계장단 제2각

보례 8)은 첫째박, 둘째박에서 김윤덕은 D(둥)-g(당)-c(징)음(音)으로 올라가는데 이말량은 D(둥)-g(당)음(音)이 지속된다. 네째박에서 g(당)음(音)을 이말량은 변화를 주었으며 나머지의 진행형은 비슷하다.

보례 9)에서는 첫째박에서 D(둥)음(音)을 김윤덕은 이말량보다 변화있게 연주하며 나머지 박의 선율진행은 같다.

보례 10)에서 둘째박은 각각 f음(音)과 g(당)음(音)으로 2도 차이가 나며 리듬형도 다른데 D(둥)음부터 끝까지는 선율이 같다.

보례 11)의 이 부분은 둘째박의 g(당)음(音)의 시가(時價)만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의 선율은 같다.

보례 12)에서 이 부분부터 평조(平調)가 시작되는데 1각만 일치한다. 셋째박에서 이말량은 e(지)음(音)의 소리를 막는 표현을 했으며 넷째박에서는 g'(쟁)음의 변화를 주었다. 다섯째박에서 김윤덕은 a'(칭)음(音) 다음에 g'(쟁)음(音)으로 내려 온다.

보례 13) 김윤덕 진양 19계장단 제 4 각 이말량 진양 10계장단 제 4 각



보례 13) 김윤덕 진양 19계장단 제4각 이말량 진양 10계장단 제4각

보례 14) 김윤덕 진양 20계장단 제 2 각 이말량 진양 11계장단 제 1 각



보례 14) 김윤덕 진양 20계장단 제2각 이말량 진양 11계장단 제1각

보레 15) 김윤덕 진양 20째장단 제 3 각 이말량 진양 11째장단 제 2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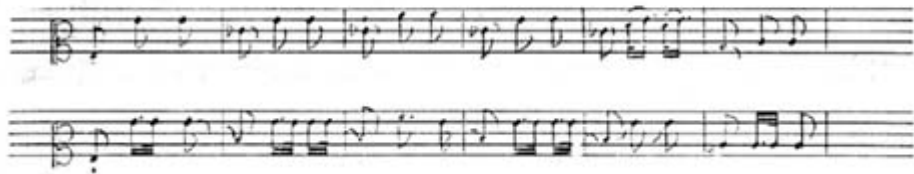
보레 15) 김윤덕 진양 20째장단 제3각 이말량 진양 11째장단 제2각

보레 13)을 보면 이 각은 김윤덕 계면조 변조(界面調 變調) (11)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셋째박까지의 선율형은 거의 같고 넷째박 둘째음에서 각각 g' (쟁)음(音)과 c' (쫑)음(音)까지 2옥타브의 진행을 보인다. 여섯째박에서도 c (징)음(音)에서 c' (쫑)음(音)으로 1옥타브의 표현을 했다.

보레 14)에서는 첫째박 둘째박에서 c' (쫑)음(音)의 리듬형이 이말량은 좀더 세분해서 진행되다가 셋째박에서 각각 f (지)음(音)과 g' (쟁)음(音)으로 2도차이가 나면서 나온다. 넷째박은 같고 다섯째 여섯째박에서 이말량은 c (징)음의 옥타브식 표현이 보이는데 보레 13)에서도 나왔다.

보레 15)에서는 다섯째박 여섯째박에서 각각 e_b 음(音)과 e_b , b_b 음(音)과 b 음(音) 등 아주 근소한 음(音)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이말량의 리듬이 좀더 세분됐다.

보레 16) 김윤덕 진양 20째장단 제 4 각 이말량 진양 11째장단 제 3 각



보레 16) 김윤덕 진양 20째장단 제4각 이말량 진양 11째장단 제3각

보레 17) 김윤덕 진양 21째장단 제 1 각 이말량 진양 11째장단 제 4 각



보레 17) 김윤덕 진양 21째장단 제1각 이말량 진양 11째장단 제4각

보레 18) 김윤덕 진양 21째장단 제 2 각 이말량 진양 12째장단 제 1 각



보레 18) 김윤덕 진양 21째장단 제2각 이말량 진양 12째장단 제1각

보레 16)에서는 둘째박 셋째박 넷째박 다섯째박에서 각각 첫음이 e b(지)과 d(땅)음(音)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된다. 여섯째박은 첫음이 b, c(징)음(音)으로 각각 나온다.

보레 17)은 첫째박 끝음에서 각각 f# 음과 d(땅)음(音)으로 나오며 셋째박의 끝음도 마찬가지 경우가 나온다. 둘째박 넷째박 여섯째박이 같은 음으로 진행되며 셋째박 다섯째박에서 첫음이 각각 b' b(칭)음(音)과 c'(쫑)음(音)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된다.

보레 18)을 보면 이 각은 이말량 진양의 마지막 장단인데 둘째박까지만 일치한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김윤덕산조(金允德散調)의 진양중 일치되는 부분은 우조(羽調)는 둘장까지 포함해서 25 각 중 11각(보레 1~11)이 일치한다.

평조(平調)는 김윤덕의 평조(平調) 8각중 첫째각만 일치하며(보레 12) 계면조(界面調)에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계면조 변조(界面調 變調)에서는 진양(11장)에 해당하는 부분중 6각(보레 13~18)이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윤덕 산조 진양 22장단중 4장단 2각이 일치한다.

다음은 이말량(李末良)진양을 구성음과 종지음¹³⁾으로 조(調)를 살펴보면 첫째 우조(羽調)는 첫째장단 1각부터 일곱째장단 1각까지로 보는데 출현음이 a, c, g, d, e, f, b 음(音)이다. 가장 많이 출현한 순서로는 d, a, g, c, f, e, b 음(音) 순(順)이다. 김윤덕 우조(羽調)보다 e음(音)과 b음(音)이 매우 적고 종지는 d(땅)음(音)으로 끝났다. 그리고 둘장의 종지음이 g(동)-c(징)음(音)으로 끝나는 점이 김윤덕의 둘장과 일치한다.

둘째 평조(平調)는 일곱째 장단 2각부터 10째 장단 3각까지로 본다.

구성음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음부터 보면 g, c, d, a, f음(音)의 순서로 출현한다. 이외에 e b과 e음(音)도 보인다. 종지음은 c(징)음(音)으로 끝나고 평조(平調)의 선율형¹⁴⁾인 a'(칭)-g'(쫑)-f(지)-d(땅)-c(징)의 진행이 8째장단 4째 5째 6째각 등에서 보인다.

계면조(界面調)(변조(變調))는 10째장단 4각에서부터 12째장단 1각까지로 보는데, 구성음은 c음(音)이 가장 많이 나오고 다음 g, d음(音)으로 나온다. 이외에 c b, e b, e음(音)이 출현한다. 그리고 김윤덕은 f음(音)이 많이 출현하는데 비해 이말량은 f음(音)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종지음은 c(징)음(音)으로 끝이 났다.

㉞ 중모리

13) 이해구박사 「李惠求博士 頌壽紀念 音樂學論叢」 中 金靜子 교수의 論文 伽倻琴散調의 羽調와 界面調 參考.

14) 李補亨, 無形文化財(音樂調查報告書) ② 伽倻琴散調 1980.10.

보례 19) 김윤덕 중모리 1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째장단

Two staves of musical notation. The top staff is in a higher register, and the bottom staff is in a lower register. Both staves show a sequence of notes with stems, typical of traditional Korean music notation.

보례 19) 김윤덕 중모리 1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째장단

보례 20) 김윤덕 중모리 7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4째장단

Two staves of musical notation. The top staff features a more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some beamed notes, while the bottom staff shows a simpler sequence of notes.

보례 20) 김윤덕 중모리 7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4째장단

보례 21) 김윤덕 중모리 8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5째장단

Two staves of musical notation. The top staff has a more intricate melodic line with many sixteenth notes, while the bottom staff has a more straightforward sequence of notes.

보례 21) 김윤덕 중모리 8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5째장단

보례 22) 김윤덕 중모리 9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6째장단

Two staves of musical notation. The top staff shows a sequence of notes with some rests, while the bottom staff has a more active melodic line.

보례 22) 김윤덕 중모리 9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6째장단

보례 19)를 보면 넷째박에서 이말량은 C(홍)음(音)을 한번 치고 c(징)음(音)으로 갔고 그 외의 선율의 진행은 이말량은 c(징)음(音)을 세분해서 표현했다.

보례 20)에서 첫째박 둘째음이 각각 d(땅)와 e(지)음(音)으로 나오고 셋째박에서 c(홍)음(音)과 d(땅)음(音)을 김윤덕은 세분해서 표현했다. 둘째박과 넷째박은 일치한다.

보례 21)에서는 둘째박의 c(징)음(音)까지는 진행이 같고 다음 김윤덕은 d(땅)음(音), 이말

량은 e(지) d(땅) g' (쟁)으로 다르게 나온다. 셋째박은 d(땅)음(音) 다음에 각각 f음(音)과 d(땅)음(音)으로 진행되고 넷째박은 같다.

보례 22)에서는 첫째박에서 김윤덕은 g' (쟁)음(音) f음(音)이, 이말량은 a' (칭)음(音)으로 갈라져서 나온다. 둘째박 끝음은 각각 d(땅)음(音)과 g' (쟁)음(音)으로 나오고 셋째박은 이말량은 c(징)음(音)이 연이어서 나온다. 넷째박도 c(징)음(音)의 옥타브 표현이 보인다.

보례 23) 김윤덕 중모리 10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7째장단



보례 23) 김윤덕 중모리 10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7째장단

보례 24) 김윤덕 중모리 11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8째장단



보례 24) 김윤덕 중모리 11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8째장단

보례 25) 김윤덕 중모리 12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9째장단



보례 25) 김윤덕 중모리 12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9째장단

보례 26) 김윤덕 중모리 13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0째장단



보례 26) 김윤덕 중모리 13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0째장단

보례 23)을 보면 이장단부터는 김윤덕의 경조(京調)와 일치하는데 구성음이 첫째박과 둘째박에서 각각 f와 g' (쟁), c(징)와 d(땅)으로 2도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하고 둘째박 셋째박은 각기 다른 선율이 나온다.

보례 24)에서는 둘째박, 셋째박에서 각각 f와 g' (쟁), f와 e(지), d(땅)와 c(징)음(音) 등 2도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한다. 그리고 4째박에서 보이듯이 d(땅)-c(징)-a(동)-g(당)의 경조(京調)의 중지선율이 보인다.

보례 25)에서는 첫째박 둘째박에 각각 D(둥)음(音)과 g(당)음(音)으로 4도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하고 그 외의 음(音)도 2도 차이가 나면서 진행한다.

보례 26)을 첫째박에서 각각 C(흥)와 D(둥)음(音) 둘째박의 f와 e(지)음(音)이 2도차이가 나고 이외의 선율은 일치한다.

보례 27) 김윤덕 중모리 14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1째장단



보례 27) 김윤덕 중모리 14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1째장단

보례 28) 김윤덕 중모리 15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2째장단



보례 28) 김윤덕 중모리 15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2째장단

보례 29) 김윤덕 중모리 16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3째장단



보례 29) 김윤덕 중모리 16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3째장단

보례 27)에서는 둘째박이 f음(音)과 g' (쟁)음(音)으로 각각 진행하고 셋째박에서는 3도 이상의 다른 선율이 나오고 넷째박부터는 유사하게 진행된다.

보례 28)에서는 둘째박까지의 선율은 별차이가 없고 셋째박, 넷째박에서 c' (쟁)음의 전성 또 g' (쟁)의 전성 등 선율이 다르게 진행된다.

보례 29)는 첫째박 둘째박에서 김윤덕은 g' (쟁)음(音) 다음에 f음(音)이 나오는데 이말량

은 g' (쟁)음(音)을 그대로 유지했고 셋째박에서 d(땅)음(音) 다음에 c(징)와 e(지)음(音)으로 각각 진행된다. 넷째박은 각각 c(징)와 d(땅)로 2도 차이가 난다.

보례 30) 김윤덕 중모리 17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4째장단



보례 30) 김윤덕 중모리 17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4째장단

보례 31) 김윤덕 중모리 45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6째장단



보례 31) 김윤덕 중모리 45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6째장단

보례 32) 김윤덕 중모리 46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7째장단



보례 32) 김윤덕 중모리 46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7째장단

보례 33) 김윤덕 중모리 47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8째장단



보례 33) 김윤덕 중모리 47째장단 이말랑 중모리 18째장단

보례 30)을 보면 첫째박에서 각각 g(당)음(音)과 a(동)음(音)의 2도 차이가 나며 둘째박에서 각각 d(땅)-g' (쟁)와 또는 g' (쟁)-d(땅)음(音)으로 반대의 음진행을 보이고 김윤덕은 3분박의 표현이 보인다. 셋째박 넷째박도 2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한다.

보례 31)을 보면 이장단부터 계면조(界面調)인데 첫째박부터 넷째박을 통하여 구성음의 일치를 보인다. 단, 첫째박의 이말량의 g' (정)음(音)은 제외된다.

보례 32)에서는 첫째박에서 김윤덕은 g' (정)음(音)을 유지한 반면 이말량은 c' (쫑)음(音)으로 올라갔으며 둘째박에서는 김윤덕이 f 에서 bb 음(音)으로 올라갔다. 넷째박은 선율진행이 거의 같다.

보례 33)에서는 첫째박에서 각각 bb 음(音)과 c' (쫑)음(音)이 1도 차이로 진행되고 둘째박 셋째박의 a' (정)음(音)까지는 같은 구성음을 가지고 리듬이 다르게 표현됐다. 넷째박에서는 각각 a' (칭)음(音)과 g' (정)음(音)이 2도 차이로 진행된다. 여기서 이말량은 a' (칭)와 g' (정)음(音)의 전성이 보인다.

보례 34) 김윤덕 중모리 48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9째장단



보례 34) 김윤덕 중모리 48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19째장단

보례 35) 김윤덕 중모리 49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20째장단



보례 35) 김윤덕 중모리 49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20째장단

보례 36) 김윤덕 중모리 50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21째장단



보례 36) 김윤덕 중모리 50째장단 이말량 중모리 21째장단

보례 37) 김윤덕 중모리 51계장단 이말랑 중모리 22계장단



보례 37) 김윤덕 중모리 51계장단 이말랑 중모리 22계장단

보례 34)에서는 첫째박의 각각 D(둥)음(音)과 g(당)음(音)의 4도 차이를 빼고는 둘째박 셋째박을 통하여 부분적인 음들이 2도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을 한다. 넷째박에서 이말랑은 a(동)음(音)을 전성으로 표현했다.

보례 35)에서는 첫째박 끝에서 각각 e(지)음(音)과 d(땅)음(音)으로 진행해서 둘째박까지 음의 차이를 보인다. 셋째박은 김윤덕의 d(땅)음(音)과 지(e)음(音)의 연결부분이 이말랑 산조에서는 e(지)음(音)의 전성으로 처리됐고 넷째박은 유사한 진행을 보인다.

보례 36)을 보면 첫째박 셋째박의 각각 eb과 d(땅)음(音), 둘째박의 e(지)와 eb 음(音) 등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한다.

보례 37)은 이말랑 중모리의 마지막 장단인데 둘째박의 각각 c' b과 b음(音), 셋째박의 둘째음c(징)음(音)과 e(지)음(音) 등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는 유사한 진행을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계면조(界面調)는 김윤덕산조 계면조 (1)번에서 4장단 (보례 19~22), 경조(京調)에서는 (2)(3)번에서 8장단 (보례 23~30), 계면조 (7)번에서 7장단 (보례 31~37)이 일치하는데 이것으로 김윤덕 중모리 65장단중 19장단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이말랑 산조의 구성음과 종지음을 보면 계면조(界面調)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음이 (1)번에서는 c음(音)이고 다음 d, g 음(音)의 순서로 출현하는데 그 밖에 a음(音) f음(音) e음(音)도 보인다. 여기서 김윤덕은 eb 음(音)이 보이거나 이말랑은 보이지 않고 대체로 김윤덕보다 이말랑이 c(징)음(音)을 세분해서 또는 옥타브로 c(흥)음(音)을 한번치고 가는 표현인 점이 다르겠다고 하겠다.

계면조(界面調) (7)번에서는 7장단 전체가 일치하는데 c, g, d 음(音)의 순서로 출현한다. 김윤덕에 비하여 f음(音)이 거의 나오지 않고 전성의 표현이 많은 점이 보인다.

종지는 (1), (7)번 다 c(징)음(音)이다.

경조(京調)는 (2)번에서는 g, d, c, a음(音)의 순(順)으로 출현하는데 김윤덕보다 전성의 표현이 많고, 부분적인 음의 진행이 2, 3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보례 30)에서 보이는 분박의 진행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 종지음은 c(징)음(音)으로 끝났다.

㉔ 중중모리

보레 38·39) 김윤덕 중중모리 1째 2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2째 3째장단



보레 38·39) 김윤덕 중중모리 1째 2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2째 3째장단

보레 40·41) 김윤덕 중중모리 3째 4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4째 5째장단



보레 40·41) 김윤덕 중중모리 3째 4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4째 5째장단

보레 42·43) 김윤덕 중중모리 5째 6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8째 9째장단



보레 42·43) 김윤덕 중중모리 5째 6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8째 9째장단

보레 38, 39)를 보면 첫째박 둘째박의 선율형은 같고 셋째 박에서 끝음이 각각 E \flat 음(音)과 D(둥)음(音)으로 차이가 나고 넷째박의 끝음도 마찬가지로이다.

보레 40, 41)에서는 둘째박의 C(흥)음(音)까지 일치하고 다음은 G(청)음(音)과 D(둥)음(音)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말량은 주로 아래음역의 선율로 계속 진행이 된다.

보레 42, 43)을 보면 이 장단은 첫째박부터 넷째박까지 김윤덕의 첫째박의 a(둥)음(音) 넷째박의 c(징)음(音)만 빼고 일치됨을 볼 수 있다.

보레 44·45) 김윤덕 중중모리 7째 8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10째 11째장단



보레 44·45) 김윤덕 중중모리 7째 8째장단 이말량 중중모리 10째 11째장단

보례 46·47) 김윤덕 증중모리 9째 10째장단 이말량 증중모리 12째 13째장단



보례 46·47) 김윤덕 증중모리 9째 10째장단 이말량 증중모리 12째 13째장단

보례 48·49) 김윤덕 증중모리 11째 12째장단 이말량 증중모리 14째 15째장단



보례 48·49) 김윤덕 증중모리 11째 12째장단 이말량 증중모리 14째 15째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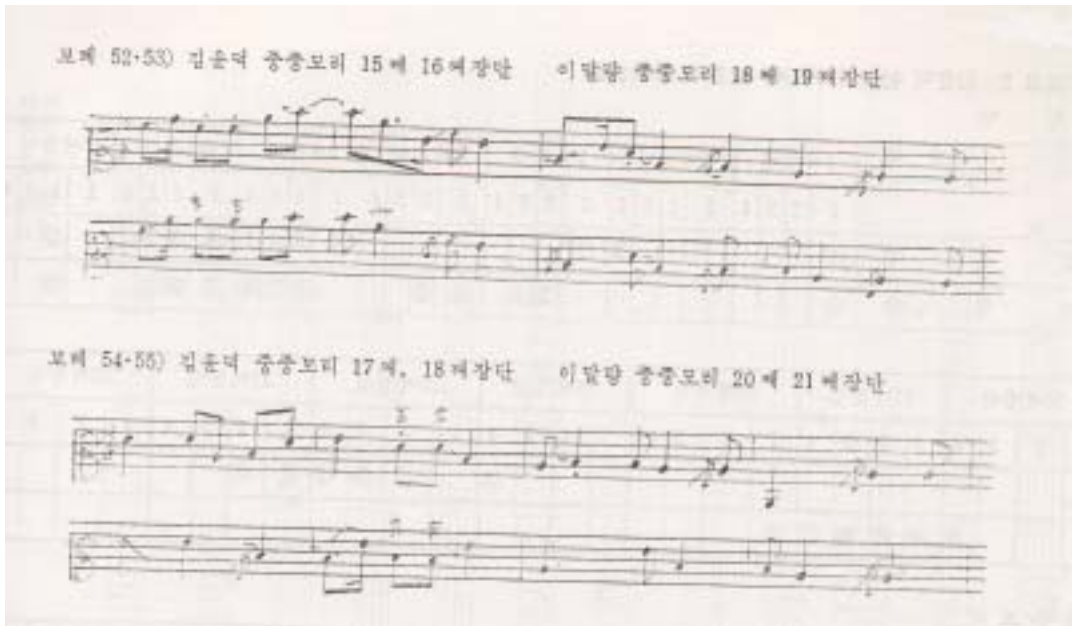
보례 50·51) 김윤덕 증중모리 13째 14째장단 이말량 증중모리 16째 17째장단



보례 50·51) 김윤덕 증중모리 13째 14째장단 이말량 증중모리 16째 17째장단

보례44, 45)를 보면 첫째박에서 이말량은 김윤덕과 같은 음을 삼분박으로 표현했고 둘째박 셋째박도 마찬가지로 형태이나 셋째박 a' (칭)음(音) 다음부터는 음(音)의 차이를 보인다. 보례 48, 49)부터 평조(平調)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구성음은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이말량의 리듬이 좀더 세분됐다.

보례 50,51)에서는 둘째박 d(땅)음(音) 다음에 각각 e(지)음(音)과 그리고 g'(쟁)음(音) 전성으로 나오고 셋째박은 f음(音)과 g'(쟁)음(音)으로 2도 차이가 나며 넷째박은 일치한다.



보례 52, 53)을 보면 첫째박 끝음에서 김윤덕은 c' (쫑)-d' (쟁)으로 이말량은 c' (쫑)음(音)을 전성시켜서 d' (쟁)음(音)으로 연결된다. 둘째박은 김윤덕이 g' (쟁)음(音)을 한번 거쳐서 a로 갔으며 셋째박도 마찬가지로 g' 음(音)을 거쳐서 f로 간다. 넷째박은 이말량이 d (땅)음(音)을 거쳐서 c(징)음(音)으로 갔다.

보례 54,55는 김윤덕 중중모리 평조(平調)(2번)의 마지막 장단이며 이말량 중중모리의 끝장단이다. 첫째박에서 이말량의 f음(音) d(땅)음(音)의 연결이 김윤덕은 분화되었고 둘째박에서는 각각 f음(音)과 그리고 d(땅)음(音)의 전성이다. 이후 계속 다르게 진행되다가 c(징)음(音)으로 종지한 것이 같다.

이상을 정리하면 중중모리는 김윤덕 중중모리 계면조(1)번 전체 10장단 (보례 38~47)과 평조(2)번 전체 8장단 (보례 48~55)이 일치하는데 이말량 중중모리는 여기서 끝난다.

전체적으로 김윤덕 중중모리 63장단중에서 이말량 중중모리가 18장단이 일치하는데 이것은 이말량 산조 중중모리 전체 21장단중 3장단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이말량 중중모리의 계면조(界面調)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음(音)부터 g, c, d의 순서인데 김윤덕보다 a음(音)이 많이 출현한다. 종지는 G(당)-c(징)음(音)으로 끝난다.

평조(平調)에서는 출현회수가 많은 순서부터 c-g-d-a-f 음(音)의 순서로 출현하고 김윤덕 산조의 g' (쟁) c' (쫑)음(音)은 전성을 하지 않는데 비해 이말량은 g' (쟁), c' (쫑)음(音)의 전성이 보인다.

4. 결 언 (結 言)

이상과 같이 김윤덕산조(金允德散調)와 이말량산조(李末良散調)를 비교한 결과 두 산조(散調)중 공통(共通)되는 부분의 선율(旋律)이 밝혀졌는데 이것을 도표로 표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첫째 진양을 보면 김윤덕 산조 진양은 22장단이고, 이말량 산조 진양은 12째장단 1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①~⑱번까지 18각 다시 말하면 4

장단 2각이 일치한다.

또 이것을 김윤덕산조의 조(調)를 기준해서 보면 진양 우조(羽調)(1)(2)번에서는 5각 보례(번~번)이 일치하고, 돌장에서는 6각(번~번)이 일치하고, 평조(平調)에서는 1각()번이 일치하고, 계면조 변조(界面調 變調)에서는 6각(번~번)이 일치한다.

둘째 중모리를 보면, 김윤덕 중모리 계면조(界面調) (1)번에서 4장단(번~번)이 일치하고, 경조(京調) (2)번에서는 8장단(번~번)이 일치하고 계면조(界面調) (7)번에서는 7장단(번~번)이 일치하는데 이것은 김윤덕 중모리 65장단중에서 이말량 중모리 19장단이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중중모리를 보면 김윤덕 중중모리는 63장단이고 이말량 중중모리는 21장단인데 이중에서 번부터 ㉓번까지 18장단이 일치한다. 이것을 김윤덕 산조의 조(調)를 기준해서 보면 중중모리 계면조(界面調) (1)번에서 10장단(번~번)이 일치하고 평조(平調) (2)번에서는 8장단()번이 일치한다.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으므로, 정남희(丁南希)가 락을 확대발전시킨 김윤덕(金允德)가락과 비교적 정남희(丁南希)의 원형(原形)을 보유(保有)한 이말량(李末良)가락 사이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발견됨으로 인해, 정남희류 원형(丁南希流 原形)의 산조(散調)가락을 김윤덕산조(金允德散調)중에서 찾아 낼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두 산조가락에 있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가락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번에 이말량산조(李末良散調)가 악보화 되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작은 성과로 생각하면서 소론(小論)을 마칠까 한다.

〈도표 3〉 김윤덕 산조와 이말량 산조의 공통선을

① 진 양

산 조	1장단				2장단				3장단				4장단				5장단				6장단				7장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김 윤 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이 말 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0장단				11장단				12장단				19장단				20장단				21장단				22장단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⑬				⑭	⑮	⑯	⑰	⑱												
			⑬	⑭	⑮	⑯	⑰	⑱																											

② 중 모 리

산 조	장 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45	46	47	48	49	50	51	52																												
김 윤 덕	⑱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이 말 량	⑱																														⑱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③ 중중모리

산 조	장 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3
	김 윤 덕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이 말 량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진 양 조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

진 양 조(page 245)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

진 양 조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

진 양 조(page 246)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

중 모 리

이 말 량 산조

중 모 리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

중 중 모 리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piece 'Jung Jung Mori'. It consists of ten staves of music. The notation is a mix of traditional Korean notation (Hanja notation) and Western-style musical notation (staves with notes and clef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clef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ere are also some Korean characters interspersed within the notation, such as '양면' at the beginning and '千調' in the middle. The score is arranged in a vertical layout, with the staves numbered 1 through 10 from top to bottom.

중 중 모 리
이 말 량 산조
구 경 모 채보